

## 女性 生活韓服을 위한 디자인 開發

조 오 순 · 전 정 희

창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의류학과

### Design Development for Activation of Women s Hanbok

Oh-Soon Cho · Jeong-Hee Jeon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2000. 12. 22 접수)

#### Abstract

Textil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the design for activation of women s hanbok focused on functionality and convenience as well as on keeping the traditional beauty, and then to produce them.

As a result of these explorations, I have reached conclusions as follows. First, the transformation of jackets and skirts are mainly limited to partial change in elements of the dress design—width and length of a jacket string and the upper strip on the outside of a jacket, change in width, and granting of symbolic meaning. Second, aesthetic features and formative beauty of traditional hanbok that the harmonization of mainstream colors and highlighting colors and curved silhouettes evoke were mental by—products created as our people wished to become friendly to and to harmonize with nature. Third, grounded upon study of lines form and survey on brands, I have developed designs that maintain hanbok' superiority and at the same time incorporate functionality and convenience to fit modern life.

I believe that the outcome of these explorations will contribute greatly to carrying the traditional beauty of Korean dresses to the maximum, and to developing and popularizing functional and practical living—fitted Korean dresses.

**Key words:** activation of hanbok, traditional hanbok, women s hanbok jogori(jacket), women s hanbok chima(skirt); 생활한복, 전통한복, 여자 한복저고리, 여자 한복치마.

### I. 서 론

복식은 인간의 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 기후, 풍토, 경제, 정치체제, 민족성, 생활양식 등의 배경에 따라 맞추어 발생하고 발전해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통한복의 형태나 구조 등에 대하여도 자연 및 사회 환경의 변화에 발 맞추어 그 시대의 대중화가 가능

한 디자인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이는 한복에 있어서도 전통미의 계승과 생활화라는 명제가 단순히 복고적인 전통의 고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과 여건에 부합되는 형태로 발전되어야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복에 대한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한복이 생활복으로서 정착하기보다는 관혼상제에만 입는 특수한 예복으로 인식되어 생활속에서는 기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한복이 우리민족 고유의 의상으로서 유려한 선과 자연의미를 살린 색상 등 많은 미적 요소를 지니기는 하였으나 생활복으로서 대중화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한복의 일상복화는 현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나 의미를 찾는 데서 시작되어야 하고, 또 대중화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자 저고리·치마를 중심으로 한복의 생활화를 위한 디자인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즉 기능성과 편리성에 중점을 두고 전통미를 살린 여자한복 저고리와 치마의 디자인을 개발하고, 실물을 제작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 및 조사연구를 하며, 작품의 디자인을 개발하고 실물을 제작한다.

연구의 내용은 첫째, 여자복식의 기본형과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한복의 미적 특성과 조형미를 고찰한다. 둘째, 선행연구 및 생활한복에 대한 브랜드 현황조사를 통해 전통한복의 문제점들을 파악한다. 셋째, 이 내용들을 디자인 개발의 근거로 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기획, 개발하고 이를 실물로 제작한다.

이는 한복의 생활화 또는 대중화의 풍토를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저고리·치마의 변천과정

상고시대부터 신라의 삼국통일 이전(B.C.2000~A.D.668)까지는 우리복식의 기본형태였다(이여성, 1947).

신라말기부터 통일신라까지(669~935)에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조오순, 1986), 중간크기 소매의 저고리 위에 치마를 입고 표를 두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당 복식의 영향으로 저고리를 입었던 고유의 방식과 저고리 위에 치마를 입는 방법이 병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935~1392)는 전시대를 통하여 저고리의 깃이 목관깃에 중저형(重褶形)으로 변하여 옆에서 작은 고름이나 매듭으로 여몄다. 대체로 이색선(異色線)이 없고 치마 허리끈을 앞으로 길게 늘어 뜨렸



[그림 1] 채색 인물도용의 여인상

다. 옷을 입는 방법은 전대(前代)와 같으며 동정이 보이기도 하였다(그림 2).

조선시대 초기(1392~1494)는 전대와 같았고 병자호란부터 갑오경장(1636~1894)까지는 조선복식의 형성기로서 저고리·치마의 길이, 넓이, 깃 형태 등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로 인한 여자기본한복의 불편함이 개화기에 거론되기 시작하여 한복의 개량화가 시도되었다.

### 2. 한복의 개선논의와 전통미

복식의 변화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보다 편리하고 세련된 방향으로 시도되기 마련이므로, 구한말에 한복의 개량이 거론된 근본적인 이유는 근대화된 양상을 통해 한복의 불편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1910년 한일합방 때도 한복의 개량화는 계속되어 여학교의 교복착용 등 실효를 거두었다. 그후 8.15 해방과 5.16 군사혁명 이후까지 이어졌으나, 1960년



[그림 2] 밀양 고법리벽화 인물복식

대 중반부터는 생활복으로는 양장, 한복은 의례복으로만 입게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 한복의 예복으로서의 기능은 더욱 증시되어 명절복이나 파티복, 무대복으로 입히지면서 그 실루엣과 색채, 문양이 무척 화려해졌다.

1981년~1990년대까지는 한복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져 품질과 디자인의 개성화, 다양화, 고급화가 시도되었다.

한복의 이러한 시대별 특성은 각 시대의 역사적 상황이나 철학적, 윤리적 사상체계와도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세계의 표현이 구체적으로 한복의 조형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복의 조형미에 있어서 직선과 곡선의 공존은 곧 근엄과 자애의 공존을 의미한다(조오순, 1997). 특히, 복식의 윤곽선, 저고리의 도련선, 소매의 배래선, 깃머리선, 바지부리선 등은 자연미를 추구하는 우리민족 특유의 선이다.

치마와 남자 바지가 만드는 실루엣은 풍성한 형태로 포용심을 상징하고 넉넉한 여유를 느끼게 하며 눈물고름, 속고름, 겹고름 등의 넓은 장식공간은 여백의미를 보여준다. 특히 버선, 아얌, 천의, 장신구 등은 거의 독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직물이나 장신구 등의 문양(紋樣; pattern)은 크게 자연문과 기하학문으로 나눌 수가 있으나 일상복에는 주로 민 문양의 직물이 사용되어 여백의미를 나타내었다. 문양은 주로 한국인의 믿음이나 염원과 연관을 가졌고, 그 표현방법으로는 천연 염색, 조각 잇기(patch), 손누비(quilt), 상침, 자수 등이 있다.

전통 한국복식의 색채적 특징은 주조적인 백색과 강조색으로 나타나는 원색의 조화로 나타난다(금기숙, 1992). 주조색인 백색은 인공을 배제한 자연과의 친화와 화합을 바라는 소박한 마음의 상징이다. 주로 일상복에 백색이 많이 사용되며 원색은 의례적인 행사나 특수복에 애용되었다. 원색은 벽사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색동은 길상의 상징으로 원색조화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색상의 대비는 맑고 밝은 색상들과 맑고 짙은 색상들의 심한 명도 차이에 의하여 흥미를 유발하는 색채조화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복의 조형에서 나타난 미적 특성은 예(禮)를 으뜸으로 하고 자연스러움과 넉넉함을 중시했던 우리민족의 정신세계의 산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한복의 미적 특성이 어떻게 창조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며 생활복으로서 정착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전통미를 복식유형의 기본이 되는 구조나 복식의 색채, 문양 등 복식의 구성요소에서 옛 것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보수성을 보이며, 전통성을 고수함으로써 복식의 미적 표현을 성취하는 것(조오순, 1997)이라고 할 때 우리는 전통성의 고수와 현대적 미적 표현의 성취라는 과제에 대한 방법적 대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III. 한복의 생활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

생활한복의 정의는 전통한복의 착탈의 차를 간소화하고 착용시의 답답함, 작업시의 거추장스러움 등 전통 한복의 단점을 보완한 한복이라는 견해(이인자·이태옥, 1993)와 이전까지의 개량 한복의 사용자가 일부 계층에 제한되고 일상복으로 착용이 매우 저조하였던 점을 개선하여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게 디자인된 옷으로 한복으로 보기보다는 양복에 한국적인 복식요소를 응용한 새로운 패션이라는 견해(황의숙, 1995)가 양립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에 '우리옷' 또는 '생활한복'이라는 이름으로 생산 판매되는 옷으로 정의하였다.

한복의 생활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방안으로 먼저 한복이 일상복으로서 불리한 점을 유사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고찰하고 수렴한다. 다음으로는 생활한복 브랜드의 제품을 각 항목별로 조사 분석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디자인 연구인지를 파악한다. 이를 근거로, 한복의 전통미를 최대한 살리면서, 현대생활에 맞게 기능성과 편리성을 겸한 새로운 디자인을 기획하여 이를 실물 제작하고자 한다.

#### 1. 개발방법

##### 1) 선행연구

김진아(1994)의 연구결과에서 한복을 기피하는 첫

번재 이유를 전체 응답자의 53.7%가 '활동에 불편하다'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갖추어 입기 번거롭다(15.3%)', '어색하고 축스럽다(10.3%)', '미혼이므로(4.7%)'의 순이었다.

이선영(1989)의 연구결과에서는 20대가 한복을 착용하지 않는 이유가 '어색하고 축스럽다', '우리옷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사람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볼 것 같아서', '미혼이기 때문에', '불편해서'의 순으로 나타나 있고, 30대는 주로 불편함을 이유로 착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김진아(199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또 생활한복이 민족문화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안명숙·김은정·양숙향의 연구(1998)와 브랜드의 생활한복에 관한 최은영(1999)의 연구도 있다.

이상으로 선행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한 전통한복의 불편한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동정을 알아대는 것이 번거롭다. (2) 깃의 형태가 다양하지 못하다. (3) 옷고름을 매는 방법이 어렵고 잘 풀린다. (4) 소매통과 치마폭이 넓어 활동에 불편하다. (5) 치마 허리띠를 꼭 조이면 아프고, 느슨하면 잘 풀린다. (6) 치마입는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걸린다. (7) 옷 손질이 불편하다. (8) 개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2) 생활한복의 브랜드현황

(1)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국내 생활한복 브랜드 중 지명도가 높고 전국적으로 10개 이상의 매장을 내고 있는 돌실나이, 여럿이 함께, 질경이의 3개사 업체를 선정하였고, 매장에 따라 공급물품이 다를 수 있으므로 1998~1999년 봄, 여름, 가을과 겨울시즌 제품의 카탈로그를 입수하여 3개사 업체의 저고리와 치마를 입은 107작품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자료분석 내용과 방법

저고리와 치마의 107작품을 색채, 소재, 문양, 형태면으로 분석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SPSSWIN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빈도, 백분율) 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3) 조사결과 및 논의

생활한복에 사용된 색채, 소재에 대하여 계절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고, 문양의 유·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과 같다.

생활한복에 사용된 색채는 주로 봄·가을과 여름에는 중명도색이 많았으며 겨울에는 저고리는 고명도색이며 치마는 중명도색이 높았다. 전체적으로는 고명도에 가까운 중명도색(저고리; 43.9%, 치마; 73.9%)이 많았다.

그리고, 배색은 상하동색(14.0%)보다 상하이색(92.0%)이 더 우세하였다. 김진아의 선행연구(1994)에 의하면 배색선호도에서 상하이색(62.4%)이 많이

<표 1> 생활한복의 색채, 소재 (N=107)

색채, 소재		계절		봄·가을	여름	겨울	합계
		저고리	치마				
색채	고명도색	저고리	8( 7.5)	18(16.8)	12(11.2)	38(35.5)	
		치마	4( 3.7)	1( 0.9)	0( 0.0)	5( 4.7)	
	중명도색	저고리	17(15.9)	14(13.1)	1(14.9)	47(43.9)	
		치마	19(17.8)	31(29.0)	29(27.1)	79(73.9)	
	저명도색	저고리	4( 3.8)	7( 6.5)	11(10.3)	22(20.6)	
		치마	7( 6.5)	9( 8.4)	7( 6.5)	23(21.4)	
합계	저고리	29(27.2)	39(36.4)	39(36.4)	107(100)		
	치마	30(28.1)	41(38.3)	36(33.6)	107(100)		
소재	면	저고리·치마	17(68.0)	1( 2.4)	38(92.7)	56(52.3)	
	면+마	저고리·치마	0( 0.0)	3( 7.4)	0( 0.0)	3( 2.8)	
	면+레이온	저고리·치마	0(24.0)	1( 2.4)	1( 2.4)	8( 7.5)	
	마+레이온	저고리·치마	0( 0.0)	6(14.6)	0( 0.0)	6( 5.6)	
	마	저고리·치마	0( 0.0)	30(73.2)	0( 0.0)	30(28.0)	
	기타	저고리·치마	2( 8.0)	0( 0.0)	2( 4.9)	4( 3.8)	
	합계		25(100)	41(100)	41(100)	107(100)	

( ): %

<표 2> 생활한복의 문양(N=107)

문양	통계치	빈도(N)		백분율(%)	
		저고리	치마	저고리	치마
유	식물문	저고리	11	10.3	
		치마	11	10.3	
	보문	저고리	0	0.0	
		치마	2	1.9	
	기타	저고리	5	4.7	
		치마	3	2.8	
무	저고리	91	85.0		
	치마	91	85.0		

나타난 것과 일치하였다. 이는 한가지 색으로 인한 단조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생활한복에 사용된 소재의 경우, 봄과 겨울에는 주로 면(겨울: 92.7%, 봄: 68.0%)을 사용하였으며, 여름에는 대부분 마(73.2%)가 많았으나 면, 마의 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므로 기능성만 강조한 느낌이 있었다. 따라서, T.P.O에 맞추어 다양한 소재로 제품을 만들어 기능성과 심미성을 동시에 배려해야 하겠다

문양의 경우, 주로 문양이 없는 제품(저고리; 85.0%, 치마; 85.0%)이 많았으며, 그 다음이 식물문양(저고리; 10.3%, 치마; 10.3%)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마에는 저고리에 없는 보문 문양(1.9%)이 보이기도 하였다. 김진아(199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문양(62.0%)에 관심이 많았으며, 즐기는 문양의 형태는 식물문(57.4%)이 가장 인기가 있었다. 따라서, 민무늬는 단조롭고 멋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식물문을 응용한 창의적인 문양을 개발하여 현대인의 개성과 취미를 한껏 살리면 한복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저고리의 깃은 대부분 등그레깃이었고 맞깃, 목판깃 형태도 다소 보였으며, 유색 동정에 고름대신 매듭단추가 많이 나타났다. 치마에는 주로 트임이 없는 통치마 형태(87.9%)였다.

최은영(1999)은 브랜드의 생활한복이 용도나 체형, 연령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하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자기 적합성의 결여를 말하였다. 또한, 상품 디자인에 대한 불만족으로 상표가 달라도 작품은 비슷하여 개성을 살릴 수가 없으며, 색채미가 결여되어 '색상이 그렇고 그렇다', '직물의 질감이 좋지 않다' 라고 하였다. 이는 생활한복을 사겠다고 하던 주부들이 막상 제품을 선택하려고 할 때, 형태면에서는 국적이 없어 보이고, 소재의 질이 좋지 못하며, 색채배합이 세련되지 못하고, 성의 없는 바느질 솜씨 때문에 구입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뒷받침 해주었다. 또, 최근 한국 소비자보호원에서 시판중인 7개 업체의 생활한복에 대하여 6개 항목에 걸쳐서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았다(조선일보, 2000). 이 표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사항으로는 인공햇볕을 20시간 동안 쬐었을 때의 색

상변화와 실험작품을 흰색의 천에 왕복 10회를 문질렀을 때 색깔이 묻어 나오는 정도를 측정한 것은 둘 다 약하다는 편이었다.

따라서, 생활한복은 전통적인 이미지를 살리면서 현대인의 개성과 취미를 중북시키는 기능성과 심미성을 동시에 가지는 다양한 디자인을 개발해야 할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 한복전문 디자이너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기존 한복집 사람들의 재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 2. 디자인 개발 및 실물제작

### 1) 디자인 개발 근거

전통한복의 불편한 점에 관한 선행연구와 생활한복 브랜드의 현황과 작품분석 및 생활한복의 형성배경과 방향, 구매동기, 착용자의 선호도 등에서 밝혀진 요인들을 디자인 개발의 근거로 하였다. 이러한 배경 의에서 구체적으로 생활한복 저고리·치마의 디자인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의 시각에서 고유의 조형미를 유지시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감을 확인시켜주고, 우리 민족의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곡선과 직선의 만남이 만들어 주는 실루엣과 다양한 깃의 형태, 물결과 개끼 바느질 방법 등에 유의하고, 안감을 넣어 형태와 선을 살린다. 또한, 한복 특유의 품세가 주는 정신적 여유와 육체적 편안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T.P.O에 맞추어 작품의 길이와 너비를 조절한다.

예를들어 주로 예복으로 디자인을 할 때는 저고

<표 3> 생활한복 품질검사 결과 (N=107)

구 분	상품명	담에 대한 변색 여부	햇볕에 대한 변색 여부	마찰에 대한 변색 여부
브랜	달맞이	○	×	×
	돌실나이	○	×	×
	여럿이 함께	○	×	○
	질경이	○	○	×
재	-	○	×	×
	-	○	×	×
	우리 마	○	×	○
비 고	○: 이상 없음 ×: 품질 미흡			

리의 소매길이는 손등에 약간 닿게 하고 소매너비는 표준으로 한다. 그러나 기능성을 강화할 때는 저고리의 소매길이는 손목에 닿게 하고 소매너비는 착수(窄袖)도 가능하다. 또한 예복에 중점을 들 때는 치마길이는 발목까지로 하고 치마너비는 표준으로 한다. 하지만 기능성을 강화할 때 치마길이는 종아리를 중심으로 하고 치마너비는 표준으로 해도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나만의 차별화로 개성추구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위하여 식물문을 응용한 독창적인 문양을 개발하여 장식한다.

셋째, 소재는 고밀도 면을 사용하여 위생적이며, 구김이 덜 가는 실용성을 갖춘다.

넷째, 일상복화를 위하여 기능성을 살리려면 전통 한복의 불편한 요소들을 보완해야 한다. 즉 허리치마나 가슴에 여미는 치마의 띠허리를 조끼허리로 만들어 다용도로 편하게 입게 한다. 또한, 디자인에 따라 저고리의 길이를 약간 길게 하여 아름다우면서도 활동이 편하게 한다. 그리고 것은 전통미를 살릴 수 있는 조선의 동그레깃을 변형시켜 착탈식으로 하고, T.P.O에 맞추어 동정을 달거나 때어도 될 수 있게 하여 기능성을 높인다.

## 2) 디자인 기획

우리민족 고유의 정서에 맞는 전통미를 추구하면서 청바지나 일반 평상복보다 오히려 편안하고 기능적으로 기획한다. 특히, 개성미를 창출해 내고 T.P.O에 따라 다용도로 연출할수 있는 디자인 개발에 역점을 두었다.

### ※형태(style)

- 가을, 겨울용.
- 전통미를 살린 동그레 깃을 변형시켜 착탈식으로 함.
- 조끼정도의 저고리길이에 매듭단추 1개.
- T.P.O에 맞추어 흰색 동정을 달거나 뿔 수 있음.
- 조끼허리 치마에 안감을 넣어 옷의 선과 형태를 살림.
- 키가 작거나 비만인을 위한 문양의 배치.
- 전통미와 기능미를 동시에 가지는 실루엣.

- 조끼허리의 소재를 걸감과 같이 사용하여 때에 따라 치 마만을 입어 연출할 수 있음.

### ※색채(color)

- 저고리 : 벽돌색(PANTONE 17-1544 TP, Burnt Sienna), 치마 : 군청색(PANTONE 19-4019 TP, Lndid Lnk).
- 벽돌색과 군청색의 조화는 저명도에 가까운 중간색조로 일상복으로서의 세련됨을 더해 줌.
- 상하이색으로 배합.

### ※소재(material)

- 걸감 : 면, 안감 : 아세테이트.
- 고밀도 면을 사용하여 실용성을 높이고 활동성을 강조.
- 천연염색이나 증기(steamer)로 처리하여 염착성 좋음.

### ※문양(patte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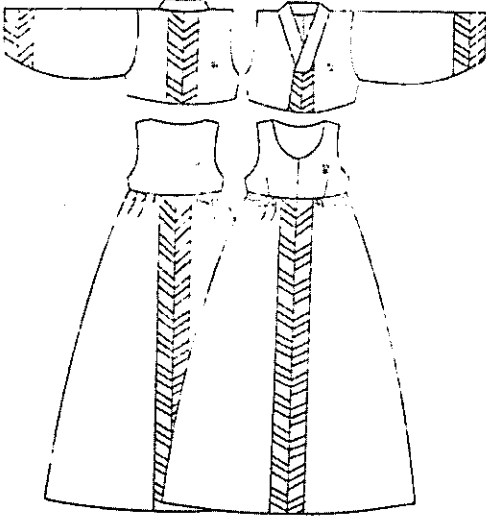

- 저고리의 등술기와 걸섵, 소매끝동, 치마의 앞뒤 중심에 식물의 보리를 패치함.
- 보리를 응용한 독창적인 문양으로 개성미 연출

## 3) 작업지시서 및 작품 사진



[그림 4] 동그레깃 저고리와 조끼치마(앞/뒤)

ITEM	TP
DESIGN NO	1
특 성	동그레깃

소재명	구 분	색 상 명	
면	저고리	길	벽돌색(Burnt Sienna)
		소매	벽돌색(Burnt Sienna)
		깃	벽돌색(Burnt Sienna)
		동정	흰색(White)
	치마	군청색(Lndid Lnk)	
	패치	벽돌색(Burnt Sienna), 군청색(Lndid Lnk), 호박색(Pumpkin)	
		SIZE SPEC(cm)	
		윗가슴둘레	88
		허리둘레	71
		화장길이	72
		등길이	37
		SWATCH	
			
원·부자재 소요 명세서			
		봉제방법및 주의사항	
소재명	구 분	규 격(자·cm)	
•면(겉감) •아세테이트(안감)	겉감	저고리	9자(495cm, 패치감 포함)
		치 마	15자(825cm, 패치감 포함)
	안감	저고리·치마	4.5마(405cm)
		동정	90c×7cm : 1개
		접착심	1마(90cm)
		숨은 지퍼	25cm : 1개
		단추(매듭단추)	3개 : 1개
		•물겹바느질 •패치 연결 •저고리겨드랑이 •조끼허리와 치마폭 연결	

[그림 3] 작업지시서

#### I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기능성과 편리성에 중점을 두고 전통미를 살린 생활한복 저고리와 치마의 디자인을 개발하고, 실물을 제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먼저 한국복식의 기본형과 여자 저고리·치마의 변천과정, 한복의 미적 특성과 조형미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전통한복과 기존생활한복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및 생활한복의 브랜드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첫째, 전통한복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동정을 갈아대는 것이 번거로우며 깃의 형태는 다양하지 못하고, 옷고름을 매는 방법이 어렵고 잘 풀렸다. 또한 소매통과 치마폭이 넓어 활동에 불편했으며, 개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활한복 브랜드의 현황과 작품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소재는 주로 면 또는 혼방이고, 대부분 고명도에 가까운 중간색조로 상하이색의 배합이 높았다. 또한 무늬가 없어 단조롭고, 개성을 제대로 살릴 수가 없었다. 저고리의 깃은 대부분 동그레깃이었고, 유색 동정에 고름대신 매듭단추가 많이 나타났다. 치마에는 주로 트임이 없는 통치마 형태였다.

셋째, 생활한복 저고리·치마의 디자인에서 고려해야 할 요건들을 검토하여 우리민족 고유의 정서에 맞는 전통미를 추구하면서 기능적으로 기획한 디자인 개발은 다음과 같다.

곡선과 직선의 만남이 만들어 주는 실루엣과 다양한 깃의 형태, 물결과 깨끼 바느질 방법 등에 유의하고, 안감을 넣어 형태와 선을 살린다. 또한, 한복 특유의 넉넉한 품새가 주는 정신적 여유와 육체적 편안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T.P.O에 맞추어 작품의 길이와 너비를 조절하였다.

색채는 벽돌색과 군청색의 조화는 일상복으로서의 세련됨을 더해 주며, 식물문을 응용한 독창적인 문양을 개발하여 장식하였고, 소재는 고밀도 면을 사용하여 구김이 덜 가는 실용성을 갖추었다.

일상복화를 위하여 기능성을 살리려면 허리치마나 가슴에 여미는 치마의 띠허리를 조끼허리로 만들어 다용도로 편하게 입도록 하였다. 그리고 깃은 전통미를 살릴 수 있는 조선의 동그레깃을 변형시켜 착탈식으로 하고, T.P.O에 맞추어 동정을 달거나 떼어도 될 수 있게 하여 기능성을 높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옷의 전통미를 최대한 살리면서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생활한복의 발전과 대중화로 한복의 생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 참고 문헌

- 금기숙(1992), 한국 전통 복식미의 현대적 활용, 복식, 19.
- 김진아(1994), 여자 한복의 문양과 배색 선호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명숙·김은정·양숙향(1998), 현대 생활한복 형성의 배경과 방향, 복식, 39.
- 여럿이 함께(1999), myhome.shinbiro.com/~kclothes/index.htm.
- 이선영(1989), 한복의 현황 및 예술화의 전망, 효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여성(1947), 조선 복식고, 서울:백양당.
- 이인자·이태옥(1993), 한복 생활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에 관한연구, 복식, 21.
- 조선일보(2000. 1. 27), 생활한복 품질검사 결과, 20면.
- 조오순(1986), 단령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오순(1997), 한복의 생활화 방안 연구, 창원:중등학교 가정과 일반 교원연수원.
- 질경이(1999), my.netian.com/~jilkyung.
- 천종숙(1998), 생활한복 저고리 디자인의 구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6).
- 최은영(1999), 생활한복의 구매동기에 관한연구, 복식, 45.
- 황의숙(1995), 한국여성 전통복식의 야식변화에 관한연구, 복식, 26.
- KBS 역사스페셜(2000.12.2), <http://www.kbs.co.kr/history>.
- Park, J. M. C(1989), Self-Dressing for the Elderly Aesthetic, *Journal of Home Economics*, 81(3).